

주요 아제르바이잔 경제동향(2022.2.28-3.11)

1. 에너지 및 인프라

□ 2022년 1월 원유 가스 생산 및 수출 동향

- 주재국 에너지부는 2022년 1월 원유 290만톤 생산하였다고 발표함.
 - 유전별 생산비율은 아제리-쉬라그-규네실리(ACG) 180만톤, 샤데니즈(Shah Deniz) 40만톤, SOCAR 70만톤이며, 원유수출량은 230만톤임.
 - 가스 생산량은 41억 입방미터(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이며, 가스전별 생산비율은 ACG 12억 입방미터, 샤데니즈 22억 입방미터, SOCAR 7억 입방미터임. 가스수출량은 20억 입방미터로, △터키(8억 입방미터), △유럽(8억 입방미터), △조지아(4억 입방미터)임.

	ACG	Shah Deniz	SOCAR	총량
원유생산량/ 백만톤	1.8	0.4	0.7	2.9
가스생산량/ bcm	1.2	2.2	0.7	4.1
원유수출/ 백만톤	-	-	-	2.3
가스수출/ bcm	-	-	-	2.0

□ 2022-2023 TAP 완전가동체제를 통한 공급확대 전망

- 쉬에파티(Schieppati) TAP 상무이사는 3.2 이탈리아 언론 Il Messaggero와 인터뷰에서 TAP 가스관이 2022-2023년 완전가동체제를 통해 연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유럽으로, 그중 80억 입방미터를 이탈리아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가스관의 잠재적 추가용량에 대한 질문에 TAP이 단기적으로 100억 입방미터에 추가로 5억 입방미터를 운반할 수 있는 규모라

고 답하며, 용량을 완전한 2배로 늘리려면 인프라 확장을 위해, 계약 체결 후 50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SOCAR-TRANSGAZ 가스부문 MOU 유효기간 연장

- 나자프(Rovshan Najaf) SOCAR 부사장, SOCAR 자문위원회 의장, 자바로프 주재국 경제부장관, 비르길 포페스쿠(Virgil Daniel Popescu)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 비르찰 (Ana Birchall)전략 및 국제문제 특사는 에너지협력전망에 대해 논의했으며, SOCAR와 루마니아 TRANSGAZ社は 지난 2016년 체결한 가스부문 MOU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고 나자프 SOCAR 부사장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힘.

□ 주재국, 루마니아와 전력 및 수소공급 협력전망

- 샤바조프 에너지부 장관은 포페스쿠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비르찰 전략 및 국제문제 특사, Transgaz와 Romgaz 고위관계자를 포함한 대표단을 맞이하고, 양국 에너지협력의 우선순위 분야와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조지아를 거쳐 흑해 바닥을 따라 루마니아까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논의했다고 3.4 주재국 경제부 발표함. 샤바조프 장관은 재생에너지원 분야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미래 해상 풍력에너지의 잠재력 실현계획이 아제르바이잔을 녹색에너지원 전력 및 수소 수출에서 유럽의 중요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함.

2.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협력

□ 주재국, OPEC+ 합의에 따라 2022년 4월까지 원유생산량 증산합의

- 주재국 에너지부 3.3 보고에 따르면, 제 26차 OPEC+ 회의에서 2022년 4월 증산 합의가 결정된 바, 아제르바이잔은 2022년 4월 일일 7,000배럴(최대 682,000배럴)까지 원유생산량을 증산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22년 1월 비석유부문 수출 동향

- 주재국 2022년 1월 비석유부문 수출은 2억 3220만불(전년 동기 대비 59%증가)을 달성했다고 2.28 주재국 경제개혁분석센터(CAERC)는 밝힘.

- 비석유부문 주요수출제품은 면사(2220만불), 감(1710만불), 견과류(1590만불)이며, 주요수출국은 러시아(7110만불), 터키(7060만불), 조지아(1450만불), 이탈리아(1100만불), 스위스(760만불)임.

□ 주재국 관광부문 동향

- 2022년 1월 주재국 방문한 외국인은 128개국에서 74,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배 증가했다고 2.24 국가통계위원회 발표함. 방문객 주요 국적은 △러시아(35.3%), △터키(24.1%), △이란(12.8%), △조지아(5.6%), △사우디아라비아(4.1%) 등.
- 해외로 출국한 주재국 국민은 89,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착국은 △터키(39.4%), △러시아(25.8%), △이란(9.7%), △조지아(8%), △기타국가(17.1%) 순.

□ 아제르바이잔-이집트 제 5차 공동위원회 개최

- 제 5차 아제르바이잔-이집트 공동경제·기술 및 과학협력위원회가 바쿠에서 개최되어 아제르바이잔 나비예프 디지털개발교통부 장관과 이집트 알 마샤트 국제협력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주재국 디지털개발교통부는 2.25 발표함.
- 양국은 무역, 산업, 상호투자, 교육, 문화, 관광 및 기타분야 협력가능성 논의했으며, 동 회담의 결과로 △양국 중소기업개발청 MOU, △아제르바이잔 수출투자진흥청(AZPROMO)-이집트 통상산업부 아제르바이잔-이집트 기업협의회 설립위한 MOU, △아제르바이잔 수출투자진흥청(AZPROMO)-이집트 경제인협회 MOU, △아제르바이잔 바쿠국제해상무역항 CJSC-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 MOU 체결함.

□ 아제르바이잔-세계경제포럼 협력확대 계획

- 2.24 주재국 경제부는 자바로프 경제부 장관이 바쿠에서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함.

- 자바로프 장관은 세계경제포럼과의 성공적 협력결과로 아제르바이잔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센터 개소했으며, 동 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제르바이잔의 급속한 발전과 역내 디지털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동 센터 설립은 이 분야의 주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함.

□ 아제르바이잔-타지키스탄 제 5차 공동위원회 개최

- 2.24 주재국 농림부는 두산베에서 아제르바이잔-타지키스탄 제 5차 무역 및 경제협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자키조다 경제개발통상장관과 아제르바이잔 카리모브 농림부장관이 회담을 가졌다고 밝힘.
- 양측은 경제, 산업, 통상, 농업, 물류, 교육, 관광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인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이 무역관계 다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타지크 기업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북-남회랑, 동-서회랑, Alat 자유경제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함. 양측은 농업-산업단지 협력확대를 위한 공동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동 회담의 결과로, 제 5차 무역 및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의정서에 서명함.

□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운송 분야 협력확대

- 나비예프 디지털개발교통부 장관과 사트칼리에프 카자흐스탄 국영기금 Samruk-Kazyna JSC 이사회 회장은 바쿠에서 회담을 갖고, 회담을 따라 부과하는 운송관세의 최적화, 국제운송회랑을 따라 운반되는 화물량 증가를 위한 통관과정의 동기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9 주재국 디지털개발교통부 밝힘.
- Samruk-Kazyna JSC는 주요 논의 주제는 트랜스-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ITR)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 프로젝트이며, 새로운 합작투자는 관세 설정과 화물신고, 통일된 IT 솔루션 적용과 해당경로에서 통과하는 화물 통합 이슈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동 회담 결과로, Samruk-Kazyna JSC와 아제르바이잔 디지털개발교통부 간 합작 투자 설립과 운송 및 물류 활동에 대한 의정서 체결함.